

광주 군공항 이전, 지역사회 합의·주민 수용성 우선

국방부·국토부·광주시·전남도 등 범정부협의체 2차 회의

김부겸 신임 총리는 불참...원론적 내용만 거론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지역 사회 합의와 주민 수용성을 우선으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취임 후 첫 회의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광주·전남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사실상 원론적 수준의 내용만 거론되고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논의를 위해 국방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광주시, 전남도가 참석한 가운데 관계 부처 2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 4월 2일 첫 회의 이후 상황을 점검하고 광주·전남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 등을 수렴해 앞으로는

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지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4월 첫 회의도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의 적극적인 지시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광주·전남 지역민의 기대감이 높았지만, 이후 정 총리가 국무총리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도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구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 의지에 변함이 없고, 지역 사회와 관계 부처의 소통 채널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면서 "광주시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후속 조치가 충실하게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또 "지역 간 이해가 걸려 있지만,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는 물론 광주, 전남에서도 열린 자세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원활한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 합의와 주민들의 수용성이 우선임을 공감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2014년 10월 광주시가 정부에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이후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기부대 양여' 방식에 따른 현실성 없는 이전 대책, 이전 거론 지역내 반발과 갈등 등으로 예비 이전 후보지 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자치분권 실현 퍼포먼스

21일 오후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각 시·도지사들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관계기관, 해양폐기물 해결 머리 맞대다

8개 기관·단체 대책 회의

해양쓰레기가 전남 바다를 뒤덮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광주일보 5월 19~21일자 5면) 전남도가 폐기물, 폐오일 등 해양폐기물 불법투기 및 수거처리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20일 도내 8개 관계기관과 회의를 하고 의견을 모았다. 최근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에서 박문옥 전남도의원 역시 해양폐기물 관리현황의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는 전남도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목포 지방해양수산업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남도의회, 목포시청, 목포시의회, 목포수협, 목포근해유자협회 등 8개 기관·단체가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어업인들 의견 개선을 위해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목포항·북항에 해양쓰레기 보관할 수 있는 선상·육상집하장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예산 확대, 선박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방안 및 보관장소 설치, 폐유활유 회수율 제고를 위한 유류 공급사업 운영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갈수록 심각해지는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과 조업활동 중 선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전량 회수처리를 위해 기관별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해양수산업에 건의하기로 했다.

강성운 전남도 해양환경과장은 "전남도가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돼 제도 개선, 법령 개정,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적극 건의하겠다"며 "관계기관과 다시 모여 논의된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어업인들도 바다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지 말고 수거활동에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어촌 역량강화사업 어촌 8곳 선정

어촌뉴딜300 사업 등 공모 대응 장흥 장환·진도 모사·해남 동현 등

전남도는 어촌뉴딜300 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전남 어촌의 6차 산업화를 통한 소득 증가, 마을 내 갈등·마찰 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촌 역량강화사업 대상지 8곳을 최근 선정했다.

23일 전남도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지난 4월부터 시·군 공모기간 중 교육을 신청한 여수, 순천, 광양, 해남, 영광, 고흥, 진도, 강진, 장흥 등 28개 어촌계 가운데 서면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신규 과정에 장흥 장환, 진도 모사, 해남 동현, 심화 과정에 장흥 이회진, 영광 월봉, 고흥 우두 등을 선정했다. 홍보 과정에는 강진 사초, 고흥 안남 등이 포함됐다.

신규 과정은 마을 자원 발굴,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발전 방향 도출, 정부 공모사업 준비와 대응 방안 마련, 마을 내 갈등과 마찰 해결 등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심화 과정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마을

발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홍보 과정에 선정된 어촌에 대해서는 어장과 어항 청소, 자매결연과 직거래 등을 위한 행사 등의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이들 어촌에 경영, 회계, 지역개발, 직거래, 갈등 조절 등 각계 전문가를 파견하고, 프로그램과 행사 진행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센터는 또 신규·심화·홍보 과정에 선정된 어촌 이외 다른 어촌에도 지원 요청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해 전남 어촌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전남지역 어촌 발전을 보다 긴밀히 지원하기 위해 어촌특화지원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6년 4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정받은 현장 맞춤형 어촌발전 지원 기관이다. 지난해 말 어촌과 도시 소비자의 직거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어촌 수산물 직거래망 바이씨(buysea.co.kr)를 오픈하고, 전남 어촌의 자체 상품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민 내년 실천 의제 '걷기 편한 길' 선정

광주시가 '2021 광주시민 총회' 열고 내년 실천 의제로 '걷기 편한 길' 선정했다.

시는 지난 21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1 광주시민 총회'를 열어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소통 플랫폼 '바로 소통 광주'에서 접수한 144개 제안 가운데 시민 공감순으로 10대 예비의제를 뽑고, 다시 여론조사로 3대 의제를 압축했다.

'걷기 편한 길, 함께 가는 광주', '아이들에게는 안전을, 학부모에게는 안심, 안전한 골목길을 만듭시다', '골목상권이 살아야 광주 경제가 숨을 쉰다' 등이다. 걷기 편한 길은 지난 2동 주민자치회에서 제안된 의제로, 지난해 12월 주민 총회에서 확정된 마을 의제를 시민총회에 제안한 것이다.

이날 현장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60여명만이 참석했으며, 대다수 시민패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참여했다. 행사의 모든 과정은 광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빛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순천시, 신성장 동력 '웹툰산업' 활성화 투자 설명회

전남도는 순천시와 함께 웹툰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1일 올해 3번째 온택트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투자설명회에는 기업인, 유관협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전라남도 대표 유튜브 채널 '옴뎀 전남투'로 참여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소통했다.

전남도와 순천시의 웹툰산업 투자유치 계획과 지원제도 등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순천시에서 지원하는 제도뿐만 아니라 전남콘텐츠코리아랩과 순천글로벌웹툰

센터에서 웹툰작가·기업들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특히 웹툰산업을 포함한 지식정보문화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을 웹툰영상으로 소개하여 흥미를 유발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콘텐츠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리소어프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같은 결과 미스터블루, 동우에이앤이 등 21개인 웹툰 및 애니메이션기업을 유치해 200여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교통시설 등 1200여 곳 안전 대진단

광주시는 24일부터 한 달간 교통·시민 편의·다중이용 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 대진단을 시행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8년 가을 수확여행, 2019년 동절기 취약시설, 2020년 자전거 도로에 이어 올해 안전 대진단은 위생 방역 활동과 방역 수칙 홍보를 중심으로 하되 안전 점검도 병행한다. 대상 시설은 자차구 추천을 받아 버스정류장 등 교통 시설 827곳, 근린공원과 어린이 놀이 시설

등 시민 편의 시설 280곳, 무인 빨래방 등 무인시설을 포함해 모두 1227곳이다. 안전 모니터 봉사단원으로 위생방역단을 편성해 분부 소독 대신 시민 접촉이 잦은 물체 표면을 소독제로 닦는 소독 방식 방역 활동을 전개한다. 버스 승강장 버스 도착 안내 단말기(BIT) 작동, 근린공원 내 고사·훼손 수목, 어린이 놀이시설 내 놀이 기구 조임 상태 등도 점검한다.

/*박진표 기자 lucky@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영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